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2월 5일(월) 총 2매		
담당 부서	국제평화 협력담당관실	담당자	• 중국교류팀장 • 담당자	김은진 ☎440-3231 유혜진 ☎440-3247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7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고(故)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조문

- 12.5일 주한중국대사관에 마련된 분향소 찾아 조문하고 애도 표명 -
- 인천시와 중국 15개 도시 자매우호결연, 한·중 교류의 중심적 가교 역할 -

인천광역시는 12월 5일 오후 유정복 시장이 주한 중국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장쩌민 전(前) 중국 국가주석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대사관 분향소에 있는 장쩌민 전 주석의 영정 앞에서 묵념한 뒤 조문록을 작성했다.

유 시장은 조문록에 “상생·창조·소통의 한·중 관계 기틀을 마련하신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님의 영면을 기원하며,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중국 국민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적고 장 전 주석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했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 국가주석을 지낸 장쩌민 전 주석은 지난 11월 30일 향년 96세로 서거했다. 장 전 주석은 지난 1995년 중국 최

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양 국가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한 최초의 중국 국가원수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지난 1993년 중국 톈진시와 처음 교류를 시작한 이후 선양시, 충칭시 등 현재 중국 15개 도시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경제,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이어오면서 한·중 교류에 있어 중심적인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는 인천시와 중국 자매우호도시가 마스크, 방호복 등 구호 물품을 상호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6년 인차이나포럼을 창립하고, 주한중국대사관과 공동으로 매년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지난 9월 ‘미래지향적 한중관계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중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6회 인차이나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또, 아시아문화교류전, 동아시아청소년 평화캠프, 인천-충칭 자매결연 15주년 기념 온라인 양궁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지속 도모하고 있다.